

크리스마스 메시지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2:10-14]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 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믿는 자들 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저녁에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양치기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는 왜 유대 왕국의 가장 높은 자, 즉 헤롯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들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양 떼를 돌보는 양치기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참으로 격에 맞지 않고 그 소식을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메시지 전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들은 이 메시지를 지극히 순수하게 보고 들은 그대로 믿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 마을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를 천사들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부모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이제도 전합니다. 그 날에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노래한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무려 4 천여년이 지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인간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성육신 파송이 드디어 이루어진 날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훼방을 놓아 그 계획이 실천되기 못하도록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처녀 마리아와 역시 다윗왕의 후손인 요셉의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 아기 예수께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는 성장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메시지, 즉 평화와 선하신 뜻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나중에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죄인들이 자신을 믿을 때에 자신의 헌신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참 화평을 이루고 두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하늘

왕국에서 살게되는 참으로 귀한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가 탄생한 날 천군의 무리가 선포한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화평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거룩한 신앙 생활로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본과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장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나의 인생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과연 내가 거절할 것인가, 그래서 심판 날에 저주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귀한 초대를 겸손하게 받아 들임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선택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